마음이 어디 있느냐?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③ 청정한 마음의 본성

〈원문〉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셨다.

"아난아, 너와 나는 동기라. 정의가 천륜과 같으니라. 네가 처음 발심해서 내법 가운데 무슨 뛰어난 모습을 보았길래 세상의 깊고 무거운 은혜를 한꺼번에 버렸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제가 여래의 32상이 뛰어나게 절묘해서 몸이 맑게 사무치는 것이 유리와 같음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모습은 욕애(欲愛)로 생긴 것이 아닐 것이니, 왜냐하면 욕애는 거칠고 혼탁해서 비린내 누린내가 서로 얽히고 고름과 피가 뒤섞인 것이어서 능히 뛰어나고 깨끗해 밝기가 이를 데 없는 금빛의 광명을 발생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목마르듯이 우러러 사모해서 부처님을 따라 머리를 깎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구나. 아난아, 잘 알아라. 일체중생이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나고 죽는 생사를 반복해 온 것은 모두 항상 그대로 있는 참된 마음의 자성이 청정한 그 자체를 모르고 온갖 망상을 쓰고 살기 때문이니라. 네가 이제 위없는 보리의 참되고 밝은 성품을 알려면 마땅히 곧은 마음으로 내 묻는 말에 답해보아라. 시방 여래가 똑같은 길에서 생사를 벗어나느니라. 똑같은 길이 바로 곧은 마음이니라. 아난아 네가 처음 여래의 32상을 보고 발심했다 하니 무엇을 보았고 무엇이 좋아했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32상을 보고 좋아한 것은 제 눈과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네가 말 한대로 진실로 보고 좋아한 것은 눈과 마음으로 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 눈과 마음이 있는 데를 알지 못하면 진로(塵勞)를 항복 받을 수 없느니라. 비유컨대 나라의 왕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 군대를 보내 적을 토벌할 때 적병이 어디에 침입해 있는지 있는 곳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으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묻노니 마음과 눈이 어디 있느냐?"

〈강해〉 대승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신체상 특징이 32가지로 나타난다고 한다. 머리 위의 정수리가 상투처럼 솟아 있는 모습을 한 정상육계상(頂上肉髻相)에서부터 발바닥이 평평한 족하안평상(足下安平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몸에만 생기는 몸매의 특이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80가지가 있다 하여 80종호(種好) 혹은 80수형호(隨形好)라 한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몸매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이난이 부처님 몸에 있는 이 상호를 보고 발심하여 출가를 했다고 말하자 부처님은 보는 것은 눈과 마음인데 얼굴에 있는 눈은 두고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예로부터 능엄십의(楞嚴十義)라 하여 각 권의 대의를 요약 10가지로 말해왔다. 1권의 대의가 칠처징심이고 2권은 팔환변견(八還辨見)이라 하여 사물을 보는 진견(眞見)은 명(明), 암(暗), 통(通), 옹(擁), 연(緣), 완허(頑虛), 울발, 제(霽)등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여 참된 견(見)은 사물에 즉한 것도 여읜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한다. 능엄십의의 3은 부석제상(剖析諸相2~3권), 4는 회상귀원(會相歸源4권), 5는 육해일망(六海一亡5권), 6은 선택원통(選擇圓通5~6권), 7은 주심묘용(呪心妙用7권), 8은 지위진수(地位進修8권), 9는 오십종마(五十種魔9권), 10은 오음망상(五陰妄想10권)이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 물음은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하나의 공안(公案)이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중생이 나고 죽는 생사를 반복하는 청정한 마음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생사를 해탈하여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망상을 쓰고 산다고 하였다. 〈유마경〉에는 직심이 도량이라 하였다. 망상에 시달리는 마음은 반대로 곡심(曲心)이다. 번뇌 망상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진로(塵勞)라 한다. 이 진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있는 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그 외적을 토벌하려면 침입해 온 장소를 알아야 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愛心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야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③ 자비관

자비관은 중생이 갖고 있는 애심을 대자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면서 안팎의 생멸심을 제도하는 또 한 가지 방편이다. 생멸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관이 있고, 진여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관이 있다. 생멸수행의 자비관은 아라한도 이전에 행해지고, 진여수행의 자비관은 보살도에서부터 행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생멸수행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관을 팔해탈법(八解脫法)을 통해 설하셨다.

△첫 번째 팔해탈은 '내유색상관외색해탈(內有色想觀外色解脫)'이다. 이는 중심을 세워서 6식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을 제도하고 밖에서 인식되는 6식 경계(색·성·향·미·촉·법)를 제도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팔해탈은 '내무색상관외색해탈(內無色想觀外色解脫)'이다. 이는 중심의 이면을 세워서 7식으로 일어나는 내부 경계를 제도하고 밖에서 인식되는 7식 경계(안계·이계·비계·설계·신계·의식계)를 제도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팔해탈은 '정해탈신작증구족주(淨解脫身作證具足住)'이다. 이는 견성오도를 이루고 나서 몸으로 지어지는 모든 업식을 본성으로 제도하라는 말이다. △네 번째 팔해탈은 '공무변처해탈(空無邊處解脫)'이다. 이는 본성을 주체로 해서 감정의 추업과 세업을 제도하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팔해탈은 '식무변처해탈(識無邊處解脫)'이다. 이는 본성을 주체로 해서 의식의 세업과 추업을 제도하는 방법이다. △여섯 번째 팔해탈은 '무소유처해탈(無所有處解脫)'이다. 이는 본각과 밝은 성품을 활용해서 의식·감정·의지를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초입반야해탈, 중간반야해탈, 종반야해탈이 그것이다. △일곱 번째 팔해탈은 '비상비비상처해탈(非想非非想處解脫)'이다. 이는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홉 단계의 선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기 제도의 모든 방법이 비상비비상처해탈법이다. △여덟 번째 팔해탈은 '멸수상정해탈(滅受想定解脫)'이다. 이는 아라한과 벽지불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탈의 방법이다. 아라한도 이전에 행해지는 자비관은 본성과 생멸심을 분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보살도에서 행해지는 자비관은 진여문과 생멸문이 불이문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 자비관을 하려면 먼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관여되지 않는 한 자리이다. 둘째는 연민과 그리움이다. 관여되지 않는 한 자리는 각성을 통해 갖추어진다.

위빠사나나 사마타관 그 밖의 방편을 통해 각성이 키워지면 이때부터 자비관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민과 그리움을 일으킬 때는 애심(愛心)을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자비관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비서원(慈悲誓願)이다. "나 아닌 것이여! 본래 비롯된 바도 공하고 실체 또한 공하도다. 바르게 쓰여서 성스러움을 갖추어라." 이 서원은 생멸심과 중생에게 바치는 다짐이다. 모든 심식의를 제도할 때 먼저 이 서원을 암송한다.

위빠사나나 방편관을 행할 때 의식·감정·의지가 일어나면 있는 그대로 보고 측은지심을 갖는다. 이것이 첫 번째 자비관이다. 초선정에 들어가면 중심이 주체가 돼서 6식으로 접해지는 경계를 비춰본다. 지극하게 중심으로 비춰보면서 편안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자비관이다. 이 과정이 '내유색상관외색해탈'이다. 2선정에 들어가면 중심을 표면과 이면으로 분리시킨다. 그런 다음 표면으로 경계를 비추면서 지극하게 그리움을 일으킨다. 이때 그리움이 지나쳐서 편안한 마음이 훼손되면 안 된다. 중심의 표면에서 경계와 일치가 이루어지면 이면의 관여되지 않는 자리로 표면을 비춰준다. 그러면서 7식 경계를 제도한다. 이것이 세 번째 자비관이다. 이 과정이 '내무색상관외색해탈'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③ 언어는 독이면서 약

마음이 본연의 일할 때가 '성찰'

인간에게 언어는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양면성을 가진다. 어린아이가 사탕의 단맛을 좋아하여 이가 상하는 줄 알면서도 사탕을 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결코 달지만은 않은 고통을 수반하는 언어의 유희에 깊숙이 속박되어 있다. 언어가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생각과 개념이 복잡해지면 표현의 한계에 묶여 본질은 길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은 의식작용은 더 많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사고를 쥐어짜며 사변적인 행위로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것으로 어떤 즐거움이 생길 때, 마치 그것에서 통찰력이 생긴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행위에서 기인한 무엇으로 얻은 통찰력이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망상 같은 것이다. 인간이 의지를 일으켜 움직이는 것은 앞을 알아서 앞으로 가는 것도, 뒤를 알아서 뒤로 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멈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이곳저곳을 헤매는 것일 뿐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와 문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힘이 아니라, 그것들의 도움 없이도 인간이 머금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 언어와 문자를 이용하여 서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인간에게 내재한 본질을 모르고 상대와 소통의 수단으로만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면, 소통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알지 못하는 상처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올바르게 알고 자신이 무엇인지를 참구하여 살아있는 고통에서 벗어난 인간 본래의 성품은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음을 아는 이를 찾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대혜대사는 인간이 살아가는 어떠한 좋은 삶보다도, 인간으로 태어나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듣고자 부처님께 의식에서 인식되는 108가지의 다양한 견해를 묻는다. 아마 대혜대사가 묻는 물음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일 것이다. 우리는 답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만 자신에게 생긴 의문이 왜 생겨났는지는 궁금해 하지 않는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답이 찾아졌을 때의 성취감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이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생겨난 그 의문이 왜 자신에게 의문이 되었는지 의문 자체를 돌이키는 발상은 쉽게 하지 못한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가서 전한 가르침 중에 중요한 네 가지가 있다.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이 네 가지는 글자로는 다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조금 전에 말한 자신에게 생긴 의문이 왜 의문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의정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조금 알고 있는 것에 너무 몰입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리기를 반복한다. 그것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모든 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 깊이 있는 성찰은 간단하다. 마음이 본연의 일을 하게 두면 된다. 이러한 직관만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흐트러진 사고와 개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꿰뚫는 통찰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언어에서 떨어진 봄이 생겨난다.

부처님께서는 사변적인 질문과 대답을 아주 경계했다. 왜냐하면 그 사변적인 토론은 아무리 서로가 만족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을 밝힌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변적인 문제들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변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변적인 견해를 먼저 제거해야 하지만, 누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변적인 견해라서, 그 견해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불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피곤한 일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일들이다. 만약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심의식(心意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체적인 불안이나 근심은 어떤 지식이나 행위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망념을 일으키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정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